



# 감전 예방장비도 없이...소방관들 위험한 출동

**양봉업자용 방호복 입은 채 작업  
전신주 별집 제거 매뉴얼도 없어  
사고 우려 속 사지로 내몰려**

10년 경력의 베테랑 30대 소방관이 '절연(絶緣) 장비도 없이 2만볼트가 넘는 고압 전신주에 생긴 별집을 제거하려다 감전 사고를 당하면서 소방대원들의 열악한 안전 장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열악하고 노후화된 장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소방관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만원짜리 '절연봉' 없어=광주 서부소방서 금호안전센터 소속 노모(39) 소방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로이스빌라 앞 전신주에 있는 별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노 소방장은 2만2900볼트의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상반신 전체에 2도 화상(중증 전기 화상)을 입고 서울 한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사고 당시 노 소방장은 굴절사다리차에 올라 16m 높이의 전신주에 있던 별집을 제거하다 돌연 쓰러졌다. 별집은 3가닥의 고압전선과 전신주를 이어주는 손바닥 너비의 철관 아래에 있었지만 노 소방장은 별다른 절연 장비도 없이 일반 갈고리만 들고 출동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원지부 측은

"한국전력 작업자들이 쓰는 완전 절연(絶緣)제로 된 10만원짜리 방전봉(COS조작봉)만 소방대원들에게 지급했다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장비 개선 말뿐인 정부=소방관들의 열악한 장비는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언급되는 단골 개선 사항이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소방대원들의 목소리다.

품질검사 완료 표시가 조작된 가짜 '특수방호복'이 무더기로 공급되는가 하면,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갑을 개인 사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지

만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형편이다.

감전 사고를 당한 노 소방장의 경우 출동 당시 감전 예방 장비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광주시 소방본부의 경우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전을 막을 수 있는 내전복 등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형편이다.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신주에 오르면 서도 장비가 미흡해 고작 민간 양봉업자들이 착용하는 별쏘임 방지복과 일반 갈고리를 들고 올라가는 게 고작이다.

업무 매뉴얼 격인 '표준작전절차(SOP)'에 전신주 별집제거 및 화재 사고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일만한 세부 지침도 없는 실정

이다. 별집 제거 신고가 지난 2013년 1587건, 2014년 2221건, 지난 7월말 현재 522건(8~10월 집중)에 달하는 실정임에도, 당시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같은 매뉴얼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뉴얼에 감전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출동한 경우 한국전력에 공조 요청하라는 등의 구체적 지침이 없어 일선 소방관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같다"며 "감전사고를 막아주는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고 관련 매뉴얼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한전 입찰 비리' 전기공사사업자들 1~4년형 선고

26명 중 25명 1심 재판 마무리

법원이 '한국전력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 사건과 관련, 전기공사사업자들에게 1년~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국내 최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의 허술한 입찰 시스템 문제에 대한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긴 26명(구속 23명) 중 25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용우)는 17일 불법적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기공사사업자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기

공사사업자인 양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조모(53)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외 전기공사사업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2~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다"면서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한 기업가의 허탈감과 분노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전산조작업체 등에게 불법적 방법으로 낙찰가를 알아낸 뒤 한전 전기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악캠프 신나오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충효동 충효분교 운동장에서 열린 국악캠프에 참가한 광주동초등학교와 충효분교 학생들이 장구를 맨 채 길놀이 배우고 있다. 1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국악캠프에서 학생들은 장구, 팽고리, 소고 등 다양한 전통악기를 배울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다리 난간 수리 안해 추락 사망했다면...

광주고법 "광주시·남구,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 판결

파손된 다리 난간을 수리하지 않아 지역 주민이 떨어져 사망했다면 안전대책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 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7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광주시 남구 사동 금교에서 떨어져 숨진 A씨 가족들이 광주시와 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주시와 남구는 A씨 가족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다리 난간이 설치됐다면 A씨가 기대거나 옆에서 넘어졌더라도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점 등을 들어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12일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광주시 남구 사동 금교를 지나다 교통사고로 끊어진 난간과 표지석 사이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이후 교통사고로 끊어진 난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축산분뇨처리장 용도변경 추진에 감사 청구

담양 주민들 감사원에 제기

축산분뇨처리장 건설을 반대해온 담양 주민들이 분뇨처리장을 짓기 위한 토지 용도변경이 추진되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축산분뇨처리시

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군이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사업부지를 확보하기도 전에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전남도의 친환경농업기반구축(광역단지)사업지침 등을 어겼다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최근 제출했다.

담양군은 연말까지 분뇨처리장 예정 부

지(3만2721㎡)의 토지 용도를 애초 보존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형질변경, 건축허가, 사업허가 등이 가능해진다. 성곡리 부지에는 소용을 친환경 퇴비로 만드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예산 44억원(국비 13억2000만원·군비 12억3200만원 등)이 소요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아동양육시설 거주 속여 병역법 위반 2명 실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대학생)씨와 전남 모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B(57·사회복지사)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8월 중순께 징병검사를 거치지 않은 A씨는 B씨와 공모, 18세(성년)가 되기 이전인 지난 2001년 1월17일부터 2013년 11월28일까지 11년4개월 동안 B씨가 근무하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한 것 처럼 병역복무면경·면제신청서를 작성, 이를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출원고아'를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 12만원어치 과자 훔친 여중생들

○...대형마트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훔쳐 계산대를 빠져나

오던 여중생 4명이 CCTV로 지켜보고 있던 보안팀 직원들에 의해 들킬다.

○...1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백모(여·15·광주 모 중학교 3년)양 등 4명은 지난 16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남구 한 대형마트에서 12만 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숨기고 나왔다는 것.

○...백양 등은 보안실에서 범행장면을 CCTV로 지켜보고 있던 보안팀 직원에 의해 범행 25분 만에 계산대 앞에서 붙잡혔는데, "방학 때 친구들과 야외에서 과자파티를 하려고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백희준기자 pboxer@

### 펜션 · 전원주택단지 · 식당 · 연수원 · 요양원 캠핑장 · 미술관 · 체험학교 등 최적장소!

- 담양캠 하루 바로 옆, 구 송학랜드
- 토 9167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귀농/귀촌 전남지역 제1순위 지역-주위, 전원주택단지/무인텔등 개발중!
- 추가 형질변경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시설자금 유치가
- 시세/감정가 - 30억원
- 매매 - 22억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대단위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4면유리, 전망좋은, 광고효과 최고!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사거리 코너
- 7층중 7층 120평, 구 빅스 Bar 자리  
레스토랑/노래홀등 모든업종 오픈 가능
- 매매-5억 5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분할임대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